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2011년 2월 14일(월) **소식지 제2호**

등대

지역을 넘어 세계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발행처 | 사단법인 호남미래연대

전화 | (062)383-9061~2

팩스 | (062)383-9063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5 낙헌빌딩 1층



‘책임사회 실천’ 기치로 지역발전 이끈다

2011년 주요 사업 계획

(사)호남미래연대가 시민아카데미 운영, 히딩크 드림필드 조성 등 ‘책임사회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

호남미래연대는 지난 1월25일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2011년 주요 사업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호남미래연대는 올해 핵심가치를 ‘책임사회 실천’으로 내세웠다. 지역 발전과 사회통합, 소통을 위해 회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하자는 취지에서다.

‘책임사회 실천’ 방안으로 먼저 (가칭)시민아카데미를 개설, 이르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유명 석학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설 시민아카데미는 자기계발과 사회발전 등에 필요한 최신 정보와 수준 높은 지식을 제공해 지역민들의 사고의 지평을 넓혀줄 방침이다.

또 광주공항 이전문제와 관련한 광주전남 상생

시민아카데미 운영...지역발전·사회통합 운동 지속

히딩크 드림필드 조성 추진, 각종 현안 해법 제시도

방안 실천 운동을 전개기로 했다. 지난해 광주공항 민항/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광주전남 상생방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방안들을 토대로 실천운동을 펼쳐나갈 복안이다.

호남미래연대는 광주 새날학교 지원, 저소득층,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및 통합 활동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인 히딩크 드림필드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호남미래연대는 지역발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을 펼치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방침이다.

사무실 이전 알림

(사)호남미래연대 사무실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및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및 팩스번호는 예전과 동일합니다.

◆이전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66-5 낙헌빌딩 1층(지하철 운천역 4번 출구)

◆전화 : (062) 383-9061~2, 팩스 : (062) 383-9063

울림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올해 나이 18세인 왕보량이 14개월 전 입국할 때만 해도 낯선 한국 땅에 믿고 의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엄마 찾아 왔지만 8~9년 전 자신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났기에 배신감이 더 컸다.

엄마도 한국인 새아빠가 입양하는 형식으로 불러들였지만 먹고사는 게 힘들어 제대로 보살펴 줄 수 없었다. 게다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어 학교 편입은 엄두도 못냈다. 자연스럽게 친구가 없었고, 우울증에 빠져 며칠간 밥도 안먹고 컴퓨터게임에만 몰두하기도 했다.

왕보량이 다시 희망을 찾은 건 새날학교에 들어간 뒤부터다. 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어울리며 상처난 가슴에 위로를 받았다. 기초 한국 어부터 생활문화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는 선생

엄마의 과거까지도 품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요

님을 통해 마음의 문도 열었다. 절망과 분노가 응어리진 자리에 희망과 감사가 스며들면서 새로운 꿈도 돌아났다. 나이 어린 동생들을 보살펴 줄 책임감도 커졌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 이제는 기초반 후배들에게 통역할 정도가 됐다.

우리나라에는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학교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2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4~19세 청소년이 58%나 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사회의 불만세력이나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대신 잘 키울 경우 완벽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대한민국 세계화의 첨병으로 성장가능하다. 실제로 새날학교의 한 학생은 의료통역으로 높은 급료를 받고 있다.

새날학교에는 왕보량 같은 아이들이 15개국

출신, 80여명이 있다. 그런데 아직 다문화 대안학교로서 정식인가를 받지 못해 운영비 대부분을 독지가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축구공 하나, 쌀 한가마도 소중한 자원이다. 30여명의 교직원들은 월급도 없이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호남미래연대는 활동 목표 하나인 ‘사회통합’을 위해 새날학교 지원 사업을 전개중이다.

정식학교 인가 문제부터 학용품 후원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유명가수도 초청했다.

이 자리를 빌어 새날 학교를 후원해주신 많은 기업과 단체, 독지 가들에게 고개숙여 감사를 드린다.<관련기사 2면>

새날학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살려주고, ‘엄마의 과거’까지도 품어안는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다.